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社說 初等教員待遇改善問題

一

初等教育機關의 擴充에따라 教育의 量的質的向上이 論議되고잇는 此際 京城府學務課에서는 初等年來의 懸案으로되어잇는 初等教員待遇改善問題를 要望事項의 하나로 決定하야 이를 監督官廳에 提出하기로되엿다한다。初等教員待遇改善問題는 오즉 教員各個人의 生活安定에만 關係되는 問題일뿐아니라 教育의 實的向上과 改善을 爲해서도 또한 至大한 關係를 갓고잇는만콤 벌서부터 이러한 制度가 實施되엿서야 할것이다。비록晩時之感은잇다할지라도 今回 京城府에서 率先하야 이問題에 着眼하고 監督當局에 要望事項으로 提出하게된것은 初等教員을 爲해서나 또는 教育의 質的向上을爲해서나 이에 全幅的贊同을 不惜하는 同時에 어制度가 하로바삐 實施되기를 要望하야 마지안는바이다。

二

元來 教育者에게 가장重大한問題는 生活安定과 保健問題일것이다。二世國民의 薰陶라는 重責을 맷긴 初等教員으로 하여금 그들의 全心力을 教育에 盡倖케하려면 첫재로 그들로부터 衣食住를爲한 後顧의 憂慮를 一掃케함이 必須條件일것이다。子女教育의 聖職에 專心함은 勿論教育의 職에 當한者의 當然한 責務이다。따라 國民教育의 重任을 맛긴 教育者로하여금 衣食住의 憂慮로부터 떠나 一意教育事業에 專念케함은 監督當局의 當然한 義務인同時에 社會一般의 責任도 될것이다。어러한 意味에서 教育者의 全生活은 國家가 保障함이 理想的制度라할지로되 實際에잇서서는 不可能한 일임으로 最少限度로라도 生活安定과 健康만은保障하야 그들로부터 後顧의 念慮를 덜게하야 教育事業에 專心케함이 國家와社會의 當然한義務가 안일가?

三

事實에잇서서는 初等學校教員처럼 心身이過勞하고 그러고도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 薄한 待遇를 밧는者가 아마업을것이다。그들의 職務가 兒童의 薰育인만콤 事務에는 거이 時間上制限이업고 收入에잇서서는 얼마되지안는 俸給밧게업스니 그들의生活이 如何한것은 可히 헤아리고도 나몸이잇을것이다。個中에서도 市內公立普通學校教員總數四百七十三名中 三分之一以上을차지하고잇는 朝鮮人教員은 加俸도업고 舍宅料가튼것도업는데 더하야 物價까지 高騰하니 特히이러한 現象이 顯著할것이다。지난여름부터 當局에서 公立初等學校教員의 保健을爲하야 有給休暇制度를 實施한것은 實로 時宜에 適한 快擧라할것이다。그러나 每年 五萬圓밧게안되는 豫算으로 實施하는 事業인만콤 實際上效果에잇서서 얼마나한程度의 恩澤을 밧고잇는가는 推察하기 容易한일이다。初等教員待遇改善問題에 잇서서는 特히 이點에 留意하야 名實共히 教育의生活安定을 保障할만한 制度가 하로바삐 實施되기를 구지要望하는바이다。

四

이와同時에 이와가튼 조혼制度는 一部京城府에만 局限할것이라 全朝鮮六千三百餘의 各公立普通學校 朝鮮人教員에도 一律的으로 實施하여야할것이며 一般私立初等學校教員에게까지 이러한 恩澤에均霑케할 方途를 講究하여야할것이다。이러한 制度는 오직 教員各個人의 生活問題에만 關係되는것이아니오 教育의 實的改善 또는 教員의 能率向上에도 至大한 關係가잇는 問題임으로 多少의 豫算上 無理를 强行해서라도 早速한 期日內에 實現되기를 要望하는바이다。當局에 要望한 加俸과 舍宅料 其他 諸手當의 一部를 支給할수 잇을것이다。同時에 一般社會도 教員에 對한 認識을 是正하야 그들에 對한 待遇를 改善할方途를 講究하여야 할것이다。

大本營遂設置
最高統帥陣容整備
陸海軍部當局談發表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今回事變에對한 統帥上의 完璧을 期하기爲하야 去十七日制定된 大本營令에 基하야 十八日參謀總長 軍令部總長 兩宮殿下께서 大本營設置에對하야 奏請하시엿든바 御裁可하옵시엿스므로 爾來編制中 二十日 完了를보아 同日 午後四時 陸軍省으로부터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陸軍省公表 (二十日午後四時發表) 今十一月二十日 大本營을 宮中에 設置하다

【東京電話同盟】大本營設置에關하야 二十日午後四時 陸海軍省으로부터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陸海軍省二十日午後四時發表) 今十一月二十日大本營을 宮中에 設置하다

大本營陸海軍部當局談 二十日午後四時發表

今般支那事變에 對處하기爲하야 大纛下에 大本營을 設置하엿다 어는 今次事變의 推移에 鑑하야 長期作戰을 覺悟로서 本格的으로 武力을 行使하기爲하야 統帥部를 戰時編制에 옴겨서 適應하다고 認定하기때문이다 大體 大本營은 大本營令에 明示함과가티 大纛下에잇서서의 最高의 統帥府로 陸海兩軍의 統帥幕僚及 附屬諸機關으로써 編成되여 帷幄의 機務에 奉仕하고 作戰을 參畫하며 陸海兩軍의 策應協同을 圖함으로써 本務로하는데 陸海軍大臣도 또한 軍政을 處理하기爲하야 所要의 隨員을 다리고 大本營에 參加케한다 卽 大本營의 設置는 專혀 統帥大權의 發動에 基하야 平時統帥部와 陸海軍省과에 分掌되는 統帥關係事項의 處理를 一元化함을 本旨로하는 純然한 統帥府로서 그 設置에 依하야 統帥와 國務와의 職域의 分界에 何等變化를 生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往往 大本營은 統帥 國務統合의 府라하며 或은 戰時內閣의 前身이라고 臆測하는者잇스나 어는 全然 根據업는 風說로 今次의 大本營設置의 眞義가 아님은 勿論이다 다만 現下와가튼 狀況에 이르러서는 政戰兩略의 一致를 期하기爲하야 大本營幕僚長과 關係閣僚等은 必要에 應하야 隨時會同하야 緊密함이 必要함으로 陸海軍大臣이 어에 當하는 外에 大本營과 內閣과의 連絡協調는 特히 緊密한 意見交換을 行하고 重要案件에對하야는 御前에 會議를 行하는 前例도 採用되는일이 잇슬것이라 拜察된다 方今皇軍은 大本營設置에 依하야 最高統帥의 陣容을 整備하고 陸海軍緊密協同의 態勢로써 더욱 運籌의 卓絶과 統帥의 完璧을 期하야 全軍將兵도 또한 一層 活氣를 加하야 出師의 目的貫徹에 邁進하려 하는바이다

米上院議員 代表撤還强調

【華盛頓十九日發同盟】일리노이州選出民主黨上院議員루이스氏는 十九日上院의 討議때에 九國條約會議에 言及하야 各國이 會議에서 取한行動의 責任을 모두米國에轉嫁하려하는 傾向이 잇슴을 指摘하고 차라리 同條約會議 米國代表를 撤收함으로써 [illegible]하라고하야 大와如히 强調하엿다 九國條約會議는 只今危機에 直面하고잇다 루즈벨트大統領은 此際 마땅히 國務省에 命하야 [illegible] 各國政府가 會議에서 取한行動을 米國政府에 모두責任을지우려하지안는가를 研究할것이다 事實 各國政府가 米國에 責任을轉嫁하고잇는傾向 [illegible] 日本은 더욱 [illegible] 反對의 [illegible] 대로 [illegible] 마땅히 米國代表를 本國에 [illegible]할것이다

○○部隊蘇州入城
無錫으로敗敵을追擊

【上海二十日發同盟】上海軍二十日午後二時發表 南水港南北의敵陣地線을 突破한 ○○部隊는 富士井部隊를 先鋒으로하고 十九日午前六時 蘇州城의 一角을占領하고 逐次戰果를 擴大하야 同日全市를 掃蕩 二十日午前九時○○部隊長은 幕僚를다리고 步武堂堂히 蘇州에入城하엿다 蘇州를占領한○○部隊는 또長驅無錫을向하야 敗敵을追擊中이다

蘇州入城詳報

【蘇州에서二十日同盟特派員發】朝來의暴風을冒하고 皇軍의蘇州入城은 神速을極하엿다 隴陽의 京滬鐵路、蘇州街道蘇州城을目標로 前進한我軍의 進出이 너무빨럿기때문에 守備하는 支那軍은 雨備를입은 皇軍을 支那軍의退却한것이라 잘못알고 我軍의 隊列에드러와 平然하게 잇는者도잇섯는데 勿論그들은 捕虜로되엿다 蘇州에 先頭로入城한者는 岩限、富原兩部隊의 將校斥候이엿다 城內를守備하는 支那兵은 日本軍이 오리라고는 夢中에도 알지못하고 깁흔잠에 빠저잇섯다。我斥候는 率先하야 城門을 十字로열고 繼續하야 城內로드러가니 步哨는엽에잇는 小屋中에 코를골고 夜明의街路는 靜寂하엿다 將校斥候는 어슴에저즌 石疊를前進하야 蘇州第一의大寺院報恩寺의九重塔絶頂에 올러가 日章旗를 날리엇다 支那軍이不知間에 占領된것이다 日章旗를 본 富士井部隊는 一齊히 城門으로부터 물려드러가 唐慌奔走하는 支那將兵을 모조리모려내여 抵抗하는者는 射殺하고 卽時蘇州城門을 占領하고마럿다 敵의戰死者는 一千을넘고 捕虜二千余인데 我軍에는 一人의死傷者도 업시 將兵은 이런滋味스러운戰爭은 업섯다한다

蘇聯態度冷淡

【東京電話同盟】蘇聯邦은 今次支那事變에 際하야 中國共産黨巨頭 周恩來以下 赤化分子를 巧妙하게 指導하야 國共合作을 强化하고 武器의 積極的供給及 支那軍의 思想的煽動을 繼續하야 왓는데 戰局의 支那側의 全面的敗退로되게되어 蘇聯邦의 對支援助도 이와 併行하야 消極的의 一途를 밟고잇는 模樣으로 二十日 確實한側으로의 情報에 依하면 南京政府는 最近蘇聯邦의 對支武器供給에 多大한疑惑을 抱懷하게되여 蘇聯邦과支那側과의間에 거오間隙을 나타내고 잇는것이 判明되엿다 卽蘇聯邦의 對支武器供給은 主로 舊共産軍인 新編第八路軍만이오 支那軍全體에는 供給하지안는事實이 明白히 되는同時에 어武器供給에는 支那側에 對하야 相當히困難한 條件이 부처잇고 [illegible] 駐支大使 [illegible]

兩艦隊司令官에 勅語를下賜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報道部公表 二十日午後七時 今日午後二時三十分 軍令部總長宮殿下를 召하옵시고 聯合艦隊司令長官及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에게 各各左의勅語를 賜하옵시엿다

▲聯合艦隊司令長官에게賜하옵신 勅語

聯合艦隊는 오래동안 艱難을凌하고 制海의 實權을 掌握하야 敵의 交通을 遮斷하고 잘 陸軍과 策應하야 敵軍을 擊碎하고 皇威를 中外에 宣揚하엿다 朕은 기피 忠烈을 嘉한다 益益 奮勵를 加하야 써 戰果를完成하기를 期하라

▲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에게 賜하옵신 勅語

支那方面艦隊는 堅忍力鬪事變發生之際에 善處하야 잘 陸軍과協力하야 上海方面에서 敵軍을擊破하고 或은長驅敵의 要地를 破하고 或은 支那沿海를 封鎖하야 敵의交通을 遮斷하고 그諸陣營을 毁碎하고 敵의 航空勢力을 驅滅하야 皇威를 中外에 宣揚하엿다 朕은 기피 將兵의 忠烈을 嘉한다 생각하면 前途는 아직遼遠하다 汝等은 益益奮勵하야 써 戰果를完成하기를 期하라

兩幕僚長宮殿下 部員에게重大訓示

【東京電話同盟】二十日大本營이 設置되엿스므로 伏見海軍部幕僚長宮殿下께서는 同日午後一時四十五分 閑院陸軍幕僚長宮殿下께서는 同午後三時四十分 各其幕僚部員을 各部會議室에 參集시키시고 大本營設置에伴한 重大訓示를 하시엿다

伏見軍令部總長 宮殿下御參內

【東京電話同盟】伏見軍令部總長 宮殿下께서는 二十日午前十時五十二分宮中에 御參內 所管事項에關하야 御奏上 同十一時五十八分 御退出하시엿다

山西戰線 皇軍의 大進擊

滿洲國、프랑코政權 防共協定에加盟
廿五日記念日에公布

【東京發】來廿五日 日獨防共協定의 歷史的記念日을卜하야 滿洲及西班牙프랑코政權이 새로日獨伊三國防共協定에 參加하야 콤인테른에對한 共同戰線의 一翼을形成하게되엿는데 이와同時에 日本及滿洲國은 프랑코將軍의 統率下에잇는 現政權을 西班牙에잇서서의 新正統政府로 承認하기로되여 玆에 日滿獨伊西五個國의 防共戰線이 國際法上 公然하게確立되여 東西兩洋에 連한一大陣營을 强化함을 마지하게되엿다

그런데 이 五個國協定內容은 東京、伯林、羅馬、新京及브르고스에서 同時에發表케될터이다

蘇州陷落會戰을 「湖」會戰으로命名

【上海二十日發同盟】上海軍午後六時發表 十一月七日以降 蘇州陷落까지의會戰을 「湖」會戰이라고 命名하다 本會戰에서 敵의遺棄한死體는 五萬을不下하고 또그死傷者는 最小限十五萬에達하며 鹵獲品의 主되는것은 軍旗十數旒 各種火砲百餘 其他戰鬪資材가 甚多하다

陳公博特使 伊首相과懇談

【羅馬十九日發同盟】國民政府의 前宣傳部長陳公博은 去十三日羅馬에到着한後 챠노外相을爲始하야 伊太利政界의有力者와會見하고잇섯는데 十九日 午後六時베니쓰宮에 뭇솔리니首相을 訪問懇談하엿다 會談의 內容은 分明치안흐나 傳하는바에依하면 一會見때에 陳公博은 本國에서携帶한 蔣介石의 메세지를 뭇솔리니首相에게 傳達하엿다고도 한다

川崎部隊 楊家濱線에進出

【嘉興二十日發同盟】十九日夕刻 泥濘을 물로 嘉興西方의 雙板橋를奇襲하야 無難히 어를陷落한 川崎部隊는 敵背進擊을繼續하야 二十日早朝 楊家濱의線에進出 西方高地關帶塘大運河(嘉興、杭州를連繫한運河)에依據하야 抵抗한敵은 橋本○砲隊의猛擊에 모두潰走、川崎部隊는 運河를건너 急追하고잇다

支那沿海封鎖
長谷川長官指揮에隸屬

【上海廿日發同盟】艦隊報道部二十日午後六時發表

昭和十二年九月第二艦隊司令長官吉田善吾及第三艦隊司令長官長谷川淸의 宣言한 中華民國沿海에對한 同國公私船舶의交通遮斷은 十一月二十日午後六時以後는 本官의指揮下에屬하는 海軍力으로써 이를行함

昭和十二年十一月二十日

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

海軍中將 長谷川 淸

[illegible]

常熟西方의 戰機刻刻成熟

【[illegible]에서廿日同盟特派員發】二十日午後四時 ○○部隊는 雨와泥濘을冒하면서 一舉로 無錫에肉迫하야 無錫南方十二粁의 新安附近에到着、蘇州無錫街道를 遮斷하엿다 一方白茆口上陸部隊는 常熟方面으로부터 西進하야 太平橋安鎭의線에 肉迫하고잇서 어方面의 戰機는 刻刻으로 熟하고잇다

敵遺棄死體五萬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午後五時發表 上海戰線에서는 十一月十九日常熟、蘇州、嘉興의 線에 이어 突破하야 太湖東方에잇서의會戰은 玆에그目的을 達成하엿다 本會戰에 잇서서의 敵의 遺棄死體는 五萬에達하고 捕虜는一萬을 不下하며 敵에與한損害는 적어도 十五萬을 不下할이 確實하다

敗殘兵大氾濫

【上海二十日發同盟】上海軍午後大時發表 無錫으로 潰走하는敵은 全然敗北되여 重要兵器를 喪失하고 鐵道 道路 크리크를 利用하야 西方及西南方으로 向하야 退却中으로 크리크上에는 敗殘兵을태운 船舟가氾濫하고잇다

敵急追中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午後五時發表 滬寧線에沿하야 前[illegible]

國府重慶遷都 正式으로發表

【上海廿日發同盟至急報】國民政府는 二十日正午 重慶遷都를內外에向하야 正式으로 發表하고 同時에 南京을 死守하며 屈辱的講和에는 絶對로 應치안흘것을 發表하엿다

그리고 右發表와 同時에在南京外交團은 一齊히 行動을 開始하야 漢口로 移轉하기로되엿다

海軍荒鷲部隊 無錫을爆擊

【上海二十日發同盟】海軍航空隊今村隊○○機는 二十日午後二時豪雨를 冒하면서 無錫及그附近의敵陣地를 猛烈히 反復爆擊하야 敵에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豪雨를冒하면서의 爆擊은 上海戰開始以來最初이다

[illegible]하는 ○○部隊는 昨十九日午後大時三十分奇襲으로써 蘇州를占領하고 城內掃蕩을終了 同九時三十分에入城하엿는데 그一部는 [illegible]에 沿하야 [illegible]追擊中이다

第一回會同 二十四日開會

【東京電話同盟】大本營과 內閣의 連絡會同第一回는 來二十四日正午頃 首相官邸에서開會 大本營側으로부터 多田參謀次長、島田海軍軍令部次長、町尻陸軍、井上海軍兩軍務局長、內閣側으로부터 近衛首相、杉山、米內、風見書記官長等이 出席하야 午餐을 함께한後 今後連絡協調에 對하야 協議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同連絡會同의 幹事役인 兩軍務局長 書記官長은 今後每週水曜日正午首相官邸에서 協議하기로되엿다

兩方의損害概數

【東京電話同盟】陸軍省發表 事變發生以來今日까지에 判明된彼我의損害槪數는左와如하다

▲北支方面	
支那側	
遺棄死體	四一、九七〇
死傷	一六四、二九〇
俘虜(武裝解除)	七、三〇〇
鹵獲兵器(이미發表)	
我方	
戰死	五、四一二
▲察哈爾方面	
支那側	
遺棄死體	二三、五〇〇
死傷	九〇、〇〇〇
俘虜	一、〇〇〇
鹵獲兵器	
銃劍	四、五〇〇
槍	五〇〇
重機	五〇
火砲	一五〇
各種刀	一〇、〇〇〇
小銃	五、〇〇〇
輕機	三五〇
彈藥	無數
我方	
戰死	四一二
▲山西方面(아직未調査)	
▲上海方面	
支那側	
遺棄死體	八一、〇〇〇
死傷	三〇〇、〇〇〇
俘虜	一、〇〇〇
鹵獲兵器	
小銃	一四、二〇〇
輕機	一、九〇〇
重機	四八〇
迫擊砲	七〇
高射砲	四
野砲	一〇
榴彈砲彈藥類	無數
我方	
戰死	一〇、二二四
▲合計	
支那側	
遺棄死體	一四五、四七〇
死傷	五五四、二九〇
俘虜	九、三〇〇
鹵獲兵器	
小銃	一三三、四九六
銃劍	一五、九四〇
重機	五七〇
輕機	二、二九六
刀	四四三
火砲	一〇、二〇八
自動車	一一
其他彈藥資材類	無數
我方	一六、〇四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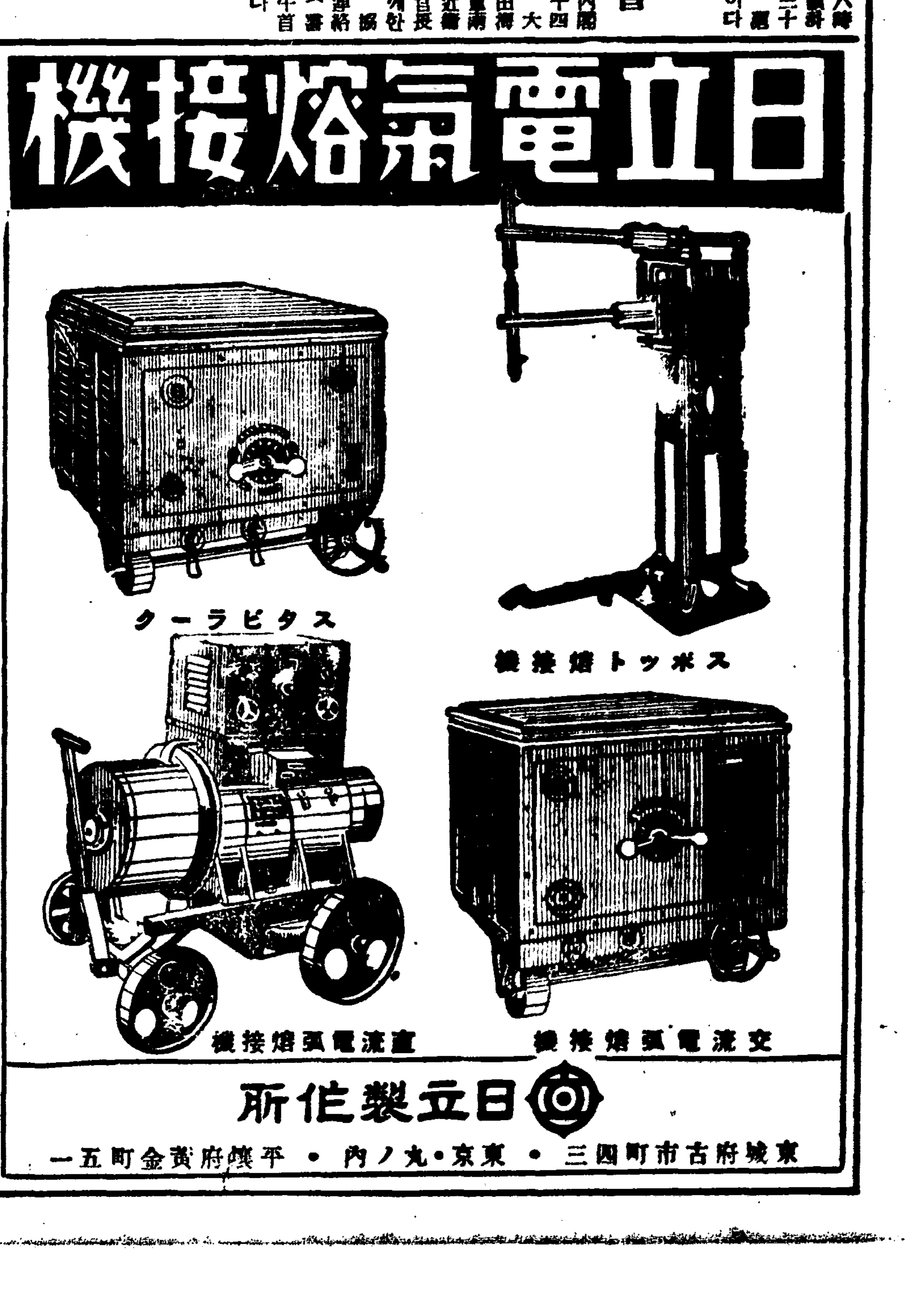
▲備考=本表는 發表한것만調査한것으로 俘虜鹵獲兵器는 아직도 多數잇슬模樣이다。

佛國테로團體發露
武器를多量押收
쇼탕首相테로取締强化策要望
政界各方面에大衝動

【巴里十九日發同盟】쇼탕佛國首相이 十九日下院에서 秘密武裝團體의 取締强化를 要求한것은佛國政界各方面에 異常한 反響을惹起하엿는데 테로團體의 脅威는 意外로 深刻하야 佛國各官憲은 萬一을 念慮하고 警察隊를 總動員하야 嚴重히 警戒하고잇는 模樣이다 今回의 테로團體發覺의 端緒는 去九月秘密組織團의 逮捕에 依한것으로 그로부터 連다라 國內重要都市에 同團體의 家宅을 搜索한結果 秘密倉庫로부터 擲彈機關銃其他 精銳의 武器多量이 發見되게된 것이다 테로團體의 背後에서 이를 指揮하고잇는者와 資金出資者는 아직알수업는 模樣이다

【巴里十九日發同盟】쇼탕首相은 十九日午後佛國下院에서 秘密武裝團體取締法案의 審議에 際하야 佛國內에서 暗躍하는 分子의 陰謀에 對하야 [illegible] 그取締를 强化할 必要가 잇다는것을 力說하고 政府는 國內에 秘密武裝組織이 잇는것을 探知하고 檢擧를 勵行하엿든結果 多量의 武器를 押收하엿다 彼等은 獨伊兩國製의 近代武器彈藥을 所蓄하고 時期가오면 全國的으로 暴動하려고한것이며 그規模가 큰것은 全然驚歎할바가잇다 佛國의密偵分子의 策謀에 [illegible] 狀態에잇는것은 我等으로서 到底히 그대로둘수업는 바이다 如斯한 犯罪者는 어느곳에서오는것을 不問하고 政府는 新手어를 擴發할 方針에다 어를하기 爲하여 政府는 秘密武裝團體를 取締하기 爲하야 特別한 法規定을 要求하는것이다

쇼탕首相은 어取締法案採擇으로써 政府의 信任을 求하엿든바 下院은 三九九對 一六〇票로 信任하엿다 또 下院에서는 델보스外相의 歐洲諸國行脚에 依하야 國內에잇서서의 戰爭不擴大에 努力하기 바란다는 言을 決議하엿다



團成社
1、紀新洋行提供 半島映畫史上大衆篇完成 全發聲 國語字幕 沈淸 安夕影監督作品 主演 金素英、申銀鳳、石金星出演
2、三映社提供 泣き笑ひ千法札
3、마키노·토─키大作品 最後の土曜日 監督 田丸重雄 主演 中野英治、山縣直代
超特別大興行 十九日부터二十八日까지 料金五〇均一
夜間六時五十分부터 十一時부터二回繼續上映 晝間은混雜하오니 晝間을利用하소서

第一劇場
十一月十八日부터四日間大公開 東西名畫特別選賞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名朝鮮劇 迷夢(一名죽어의자장歌) 主演 文藝峰氏、羅雄氏
音樂喜劇 黃金의雨
松竹大船特作全發聲 現代名篇 戀も忘れて 主演 桑野通子、佐野周二氏

若劇
1 沙漠の朝 11·30 3·10 6·50
大每編輯版
2 全線總攻擊 12·50 4·30 8·15
大每·朝日
3 支那事變ニュース 1·45 5·25 9·10
4 禍福(後篇) 11·30 4·25 9·10
(一) ワーナー作品ケイ·フランシスエロルー·フリン主演 (三)東寶作品入江たか子 高田稔 竹久千惠子·逢初夢子主演 換氣溫風暖房
十八日封切六日間 晝夜三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桃花劇場
十一月二十一日부터 每日晝夜二回上映
怪奇偵探活劇 第七號國際列車
全勝キネマ特作オールサウンド版 時代劇 日本一の桃太郎 主演 山本松男
特別出演 松本榮太郎 市川松之助
現代活劇 結婚突擊隊 ハヤブサヒデト 北見禮子 主演

白菜도無前大豊! 市勢는大槪低廉

날세는더웁고물건은밀리어 "늦김장"이한목볼모양

지금대한장·서울의김장

해마다 경성의 김장은 대개지내는가정에서는립동(立冬)앞에하는것을 전례가티 네여오던것인데 금년에는 지난여름에 동경(東京)에 더웁더니 그여파로 그러한지 아직도 날세가 따듯하기가봄날가타야강원도에서는개나리꽃지 피엿다는풍의괴소문 나타내여 장안의 겨울사리로 가장걱정하는 김장을 아직들 서들어대지를 안허 일반의수요가 밀리지안는데다가 금년김장은 작년의 흉작과는 정반대로 아주 대풍이어서 경성근교의 무 배채로써 경성시민의 김장을 다 하고도 넉넉히 남는 형편이겟지서 김장시세가 아주싸다 아직날세가 출렁뜨듯하기만하야 그동안 별로크게오르내렷다하야서 대개배채백통에 상원오십전이면 상당한리로 될것이엇조흔것이래야 사원오십전이고 나쁜것은 이원오십전도잇다 십구일에 잠간비가오며 날세가 추워지는듯하야갑세변동이잇는듯하더니만이십일에날이풀고 여전히따듯하야 그대로 며터히시세가 계속된다 무는백근한가마니에 일원이면조코 물건에따라 일원을 오르내리고잇다 그대신 고초시세가 금년에는 산풍이라면서에 오지를못함으로 필요한여필십전까지하더니 언제나 그리한거와가치 서울고초시세가조라는바람에근방고초가 물려들어칠십전대로 떠러지고잇서 이것도 별로걱정업는듯하다 경성김장은대개동대문밧겻을 비롯하야 룡산너것과부악재넘어것과서강(西江)이며 덤머리벌에서 오는것인데 아직밧에서도 반이나 남어잇는모양으로 금년에는 늦김장도판게치안켓스나마 이십일일 월남남도하로이틀을 휴정이 만흘것은 두말할것업서서 이때조금 노파질것가튼다 날세가 좀더이대로만 가면 아직도 이달하순안에는판게업슬것으로 그다지 넘너지못한도시가정들에서 그리케할필하지아허도 조켓다고한다

新規事業은大縮少 河川改修는繼續

京畿道土木豫算編成方針

楊平、原州間金山道路만은豫算計上

경기도의 명년도 예산은 방금과에서 편성중인데 이번은 비상시국이니만치 국방상 또는 국책상사업이외에는 신규사업은 최소한도로 줄일방침이 바경기도 토목과(土木課)에서도 중소하천개수(中小河川改修)등의 계속사업이외에는 별다른신규사업을제출하지 안흘터이나 다만중돈부의 산금정책에서 불어난 금산도로(金山道路)에관하여서는 국책상 이를실현할수박게업서 경기도안의 금산도로는 양평(楊平) 경내에서 원주(原州) 경내에 이르는 약 십구『키로』의 금산도로로 금후 삼개년 동안에 완성할 예정으로국고보조하의경비 여섯이만오천원을 명년도예산에 편성하게되리라고한다

老婆轢傷

부내종로오정목사십구번지 사는 방명심화(方明心花)라는 륙십오세된 로파는이십일오후네시에 부내종로오정목 일백이십이번지앞 큰길을 지나가다가 부내앵정정(櫻井町)이정목륙십일번지 상천(上川)집 두부배달인 정영철(鄭永哲)(一七)소년이 타고가든자전거에 바치여 너머저서 갈비뼈가 부러젓다는데 길을가르건느려다가 자전거에 부다친것이라한다

立川飛行隊壯擧

【立川電話同盟】이미 일천륙백『키로』를 날오야외(野外)장거리비행의 립천(立川)비행제오련대 복승(福升)소좌의 지휘한 여섯기는 이십일 오전여섯시반 용의 립천을 출발하엿는데 오날의 코ㅡ스는 선대(仙台)청삼(靑森)을 거처 능대(能代)까지라고한다

銀行食堂傭人 巨金携帶逃走

시내본정 이정목 십구번지저축은행(貯蓄銀行)의 식당용인영하는평강태랑(平岡增太郎)의 고용인 유영식(劉英植)(二三)이는 이십일오후려시 이십분경에 주인의 심부름으로 본정일정목 저축은행에서무게에서 업금사백팔십이원오십전을 바다가지고 그대로 회령도주하여버렷는데 방금 소관본정서에서는 범인을엄탐중이다

거리에나온戊寅새해!

女子商業新築落成式 昨日盛大히擧行

各界名士學父兄千餘名會集

閉式後映畵會展覽會等開催

독지가 한량호(韓亮鎬)씨의 교주로마지한후 경성여자상업학교(京城女子商業學校)는한씨의 거대한출자로 지난삼월교사를 축희정(祝禧町)에 신축중이던바지난십이일완정되여 드되어이십일오후두시에 그신축대강당에서락성식을 거행하엿다 염원(梶原)학무국장과 경기도 신곡(新谷)내무부장을 비롯하야 각계명사와 학부형등 천여명이 참석하야 식은자못 성대하게 진행되엿는데 황거요배, 국가합창, 치어로 뭇나자 지사의고사와 교장등의 축사가 잇슨다음 오후두시경 식을파하고 영화며교내전람회와 주연이잇슨다음 오후다섯시경에 끗마첫다 (사진은낙성된교사전경 중은교주 한량호씨 하는식장전경)

無錢取食漢

부내한강통(漢江通)사번지 전환우내(田丸屋內)의 고용인으로 잇는 한선(韓暹)(二一)은 이십일새벽한시쯤 부내대도정(大島町) 이십사번지 평화식당(平和食堂)에서 무전취식을하다가 룡산서원에게 취체를바게되엿는데 그는 함남(咸南)모군수(郡守)의 아들로 자기아버지는 사법수임이라는 공연한말을하며 부내각처를 도라다니면서 이십원어치나 무전취식한것이 발견되여동서에서는 인치후 여죄를 엄중취조중이다

京畿道各府郡 統計主任會議

십구일오전열시부터 경기도청에서이틀동안경기도부군(府郡)통계주임이 회합하야 인구동태(人口動態)조사사무협의회를 열엇다 조선의 인구동태조사는 종래지방분사(地方分査)에 의하야 조사하여왓기때문에 그내용이 불비조사한점이 만헛섯는데 소화십삼년부터는 중앙집사(中央集査)를 채용하게되여 조선인구동태조사규측이 귀정되엿슴에 비최여 이근본적대개정을 잘하기하야 국문로는 직접당자는 물론 이동을 철저하게하야 조사에만 전부 기관고과 기타상세한데까지 충분한협의를 하엿다

雙脚의團長配下에 竊盜分業秩序整然

金華莊後山土掘에蟠據한 大竊盜團을一網捕盡

이십일오후일곱시경에 금화장(金華莊)뒷산에 약이십여명이나 드러갈수잇는 큰 토굴(土堀)을 파고 거기에는 얼른 아라볼수 업게맨들고서 그안에 십여명의 절도단이 숨어잇는것을 서대문서원이 적발하야 그수괴김상룡(金聖龍)(三一)과 그부하 리장래(李長來)(三一)등 일곱명을 일망타진하야방금엄중취조중이다 수괴김상룡이는 일명『삐뚜리』라는이름을가진 절름바리병신으로 힘이 무섭게세여서 거지애들을 모아다노코 강제적으로 절도를 식히여서 거두어 먹고잇던것으로 발붙어오는반과 쌀을도적하는때와 금화장의 문화주택의 빈집에 칩입하야 귀금속과 금품을 권율깨트려서 현금을 도적하는 무리로 대오를나누어서 조직적범행을 식히는사실이 들어낫는데 그피해가 막대하다고한다

農村動力界의福音 "木炭瓦斯發生機"

大邱秋秉武氏의苦心發明

燃料經濟의新裝置

비행기 자동차등 가장 국방기재(國防機材)에없는 동력(動力)으로 넓게도 나날이 귀하여가고 비석유(石油) 중유(重油) 어떠한 사가변지에서든 구할수잇는 숫(木炭) 각종발동기의 동력을 얻은 비상시에 더욱 귀중한 장치가 일정변동가의 고심으로 발명되어 전매특허(專賣特許)실용신안등록(實用新案登錄)까지엇게된 반가운 소식이잇다 대구부 [illegible]이정목 추병무(秋秉武)(三〇)씨의 손으로 얼마전에 완정된『트·에스·케』식 목탄와사발생기가 그것이다 보통 [illegible] 계하야 복잡한 [illegible] 作用)을 이르켜 생기는 일산화탄소(一酸化炭素)와 수소(水素)를 주성분으로하는 가연성(可燃性)까스를 만드는장치로 이것을 간단한 방법으로 보통석유발동기에다 련결하면 숫에다 불을켜 댄지 십분 내지 이십분이면 그대로발동기가 도라가는장치로 석유갑에비하야 비용이 약십분지일밧게 들지안는점이 더욱농촌동력계의 장래를위하야 일대복음이라고하야 지난 시월이십일부터 시내남대문협동 동부상공장려관(商工奬勵館)에서 열렷든 조선공업협회(朝鮮工業協會)주최 발명품전람회(發明品展覽會)에서도 만흔칭찬을 받은 훌륭한발명품이다
(사진은신발명의 한목탄와사발생기)

前川、江界線竣工

오는廿二日에試運轉

正式營業은十二月一日부터

【平壤】만포선전천강계간(前川江界間)의 사십칠『키로』는이십이일부터 시운전을하기로되여 평양철도사무소에서는 관민유력자를 위시하여 시승(試乘)안내를발송햇는데 정식영업은 십이월일일부터 개시하기로되여 역장(驛長)기타도결정되엇다하고 근일때 발표하기로되엿다

共同우물에 嬰兒의胎盤

공동우물로수로 사용하는우물에서생생한 어린아이의 태반이나 오기괴한사실ㅡ 이십일정오쯤 부내도정(大島町)이십칠번지의 이십칠호배성녀(成姓女)(三五)의 집압공동사용의우물에서 갓난아이의 태반(胎盤)한개가 발견되엿는데 어떠한자가 태반만 우물안에 버린것인지 갓난애를 태반과함께우물안에 악장한것인지 이괴사실의정체를 알고저 동리사람은우물물을 퍼내기시작중이라는데그결과가 자못 주목중이다

日曜講話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感謝의生活 金永燮氏
午後七時 感謝特別禮拜 主日學校主催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感謝 金觀宇氏
午後七時 未定 金仁湜氏
◇尙洞敎會 午前十一時 當然한感謝 方熙氏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獻納의精神 朴濟瑞氏
午後七時 [illegible]
◇宗橋敎會 午前十一時 『感謝祭에對하야』 申公淑氏
感謝節祝賀禮拜 主日學校幼年部
午後七時 未定
◇覺皇寺 午前十一時 張德數氏
◇三淸町敎會 朝十一時 朴湖權氏
聖道의거님
夕七時 凡事에感謝 金鎭浩氏
◇宮井町敎會 朝十一時 朴信五氏
獻身禮拜
夕七時 恩惠바든한사람 尹鍾烈氏
◇南山町敎會 午後二時 少年部主催 李智光氏
生活의原動力

明夜로迫頭한 아마拳鬪戰

新義州,統營等地에서도出場

申請은今日正午까지

全朝鮮아마츄어拳鬪聯盟主催와 本社後援의 比律賓派遣代表朝鮮代表選拔第四回全朝鮮아마츄어拳鬪選手權大會는 이음고 明二十二日과 二十三日의兩日間午後七時부터 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擧行할터인바 申請期는 今二十一日正午까지인데 地方으로부터新義州 統營 光州 木浦 仁川等에서의新進猛將들이 出場케되엿고 各道場에서도 多數參加할터이으로 大會의 날을 하로압둔 選手의人氣는 沸騰하고잇다 參加選手의 計量은 올림픽規則에 準하야 大會當日마다 午前十時부터 同十一時까지 朝鮮日報社에서 行하기로되엿다

學生自轉車 聯盟發會式盛大

上凝展을위하야 統制잇는 奬勵와指導를 圖謀하려는 意味에서 組織되는 朝鮮學生自轉車競技聯盟創立發會式은 豫定과가티 去二十日午後二時半에 本町明治製菓홀에서 城大豫科代表 金大鼎君의司會로열리바 府內各專門學校代表者와 및社會體育代表其他有志等五十餘名이 參席한가운데規約規則을 通過시키고 役員選擧에잇서서는 다음評議員會를 開催하야 議會에서 決定키로하고 圓滿히 創立第一聲을 올리엇다

靑年團籠球리그 二部制로變更

八團體가參加

中央基督教靑年會主催의 第十一回靑年團籠球聯盟戰은 來十二月一日부터 鐘路靑年會館內『코ㅡ트』에서 첫試驗으로 一部와 二部에나노아 擧行할터인데 第一部에는 延專과普專 第二部는 高麗、中央佛專、스파르타、라이거、白燕、씨거等八個團體이라하며 第一部戰은 二回戰을行하되 一勝一敗가될때에는 第三回戰을 行하기로되엿다하며 日程表는三十日에 決定發表할터이라한다

럭비ㅡ界의 俊銳 總登場한 朝鮮豫選戰

今日京城運動場서開幕

럭비ㅡ씨ㅡ즌을 마지하야 專門과中等界의 俊銳들이 總動員되야 鮮럭비ㅡ協會主催의 全日本高專中等兩大會朝鮮豫選戰 第一日은 今二十三日午前十一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開幕될터인데 第一戰엔 南朝鮮의雄(A) 東萊高普와 京商이 對戰케되엿고 뒤이어(B) 養正對京師(C)新義州高普對道商(D)培材對徽文戰을 行할터이며 高專部에는 準決勝에 (A) 大邱醫專과普專이 接戰케되엿다 이리하야 二十三日午後零時半부터는 A의勝者對B의勝者 C의勝者對D의勝者對이잇슨後 普專對A의勝者의 高專部決勝을 行하기로되엿스며二十五日午後三時半에는 中等部決勝戰을行할터이바 今年度럭비ㅡ界의 總決算을 지을것으로 興味를 集中케한다

普專과延專 決勝戰에

明日은第一次戰

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主催의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朝鮮豫選戰第一日은 二十日午後三時十一分부터 安國町徽文高普體育館에서 擧行한바 第一回戰에 普專이 高麗를 延專이中東을 모두實力의差로 익이고 明二十二日午後四時부터 열리는 決勝戰에 普專과 延專이對하게되엿는데 二十三日午後四時에는 延專과普專의 第二回戰을 行하고 兩軍一勝一敗인時에는 二十四日 決勝戰을 行하기로되엿다

普專81（51 30…30 14）24高麗

普專對高麗의 第一回戰은 同午後三時十一分부터 金振秀、李文鎬兩氏審判아래開始한바 八十一對二十四로 普專大勝하엿다

反後前【普專】 0 1 28 李好善 / 0 2 4 申光浩 / 0 12 13 [illegible] / 0 0 0 崔成源 / 1 9 0 [illegible] / 0 0 2 崔喜烈 / 1 6 2 [illegible] / 0 4 0 金昌錫 / 0 6 2 安[illegible] — 2 51 30
【高麗】前後反 尹正燮 2 2 1 / 林用淳 0 2 1 / 孫牧人 0 0 0 / 尹相燮 4 2 2 / 曺明煥 4 2 1 / 鄭福慶 4 2 0 — 14 10 5

延專77（37 40…9 18）27中東

延專對中東戰은 同午後四時十五分부터 李惠澤、林東洙兩氏審判으로 開戰한바 結局 七十七對二十七로 延專이 快勝하엿다

反後前【延專】 0 2 10 張利國 / 4 0 2 [illegible] / 0 1 0 2 李[illegible] / 2 3 17 金[illegible] / 2 6 0 [illegible] / 1 2 2 方元淳 / 0 4 0 盧元根 / 1 10 7 金程信 — 10 37 40
【中東】前後反 李明哲 4 2 2 / 孫仁權 3 2 3 / 金萬壽 5 3 3 / [illegible] 1 1 3 0 / [illegible] 0 0 0 4 / [illegible] 0 1 1 — 18 9 11

培材依然全勝

一高、養正、中央各勝

第11回中等籠球聯盟戰 第13日

中央基督教靑年會主催의 第十一回 京城中等學校籠球聯盟戰第十三日의 一部培材對道商戰과 二部의 善隣對一高、養正對京工、中央對電機戰等의 四게임은 二十日午後六時半부터 鐘路靑年會館內『코ㅡ트』에서 擧行하바 培材는 예나다름없이 道商軍을 물리치고 四戰四勝의 全勝準優勝을 保하엿스며 一高軍이 接戰끄테 善隣을, 養正軍은 京工軍을 擊破하고 中央軍이 電機軍을 이겨 모두戰勝을 올리엇다 그리고 明二十二日에는 第三次戰으로열리 培材對中東戰은 各其四戰四勝의 全勝準會를 가지고잇는만큼 第一部의首位爭奪戰이 될것으로 이날밤의 이接戰이야말로 籠球界의興味를 더욱 이끌고잇다

【第一次戰】一部의 培材對道商戰은 同日午後 七時二十分부터 金振秀、李遇逸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培材軍振初부터 好調를 보이여 結局 七十九對四十七로 培材軍이 大勝하야 四戰四勝의 全勝準을 確保하고잇다

培材79（33 46…24 23）47道商

反後前【培材】 2 0 0 朴演洙 / 1 1 16 李[illegible] / 2 10 7 李昌河 / 3 0 2 車[illegible] / 0 0 4 朴[illegible] — 8 21 19
【道商】前後反 林伯[illegible] 11 6 3 / 金[illegible] 4 0 0 / [illegible] 6 0 4 / 朴[illegible] 0 0 1 / 朴九[illegible] 0 2 1 / 韓相俊 2 5 0 — 23 13 9

【第二次戰】二部의 一高對善隣戰은 同日午後六時半부터 李惠澤、金振秀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一高軍後半戰에 大活躍으로 結局四十對三十六으로 善隣을 물리치고 六戰三勝三敗의 戰績을 남기엇다

一高40（21 19…13 23）36善隣

【第三次戰】二部의 養正對京工戰은 同日午後八時十二分부터 李惠澤、陳永得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養正軍이 最後까지 京工軍을 壓倒하야 結局六十七對十二로 이겨 六戰五勝一敗의 好績을가지고잇다

養正67（30 37…1 11）12京工

反後前【培材】 4 6 14 徐永錫 / 0 0 0 胡成健 / 0 8 12 李廷九 / 1 7 8 張元國 / 0 8 8 宋永昌 / 3 4 4 梁成春 — 8 23 46
【道商】前後反 李[illegible] 4 8 0 / [illegible] 2 2 1 / 丁[illegible] 0 0 1 / 鄭相龍 4 6 0 / 柳[illegible] 5 6 3 / 金昌[illegible] 3 2 1 — 23 24 6

【第四次戰】二部의 中央對電機戰은 同日午後九時五分부터 申光浩、陳永得兩氏審判下에 開戰된바 中央軍끝까지 奮戰하야 結局七十對二十四의 大差로 電機軍을 一蹴하고 六戰二勝四敗의 戰績을 나타내고잇다

中央70（35 35…11 12）24電機

反後前【養正】 3 4 2 高圭復 / 0 0 2 李[illegible]相 / 2 7 9 金光洙 / 0 2 0 吳相[illegible] / 2 11 16 申宗淳 / 1 6 8 林秉南 / 3 0 0 車相[illegible] — 11 30 37
【京工】前後反 朴[illegible]夏 1 0 0 / 洪道股 0 0 0 / 韓址榮 5 0 0 / 吳[illegible] 4 0 4 / 朱[illegible] 0 1 1 / 鄭[illegible] 1 0 3 — 11 1 8

反後前【中央】 0 3 10 李祖永 / 1 10 2 李[illegible] / 2 6 9 白承龍 / 2 3 6 曹寅錫 / 1 0 8 安[illegible] / 1 14 0 吳斗煥 — 7 35 35
【電機】前後反 徐春吉 6 2 2 / 崔在諺 3 0 3 / 尹殷秀 2 6 1 / 梁泰鉉 0 3 1 / 崔景俊 1 0 1 / [illegible] 0 0 0 — 12 11 8

自動車新記錄

【하닐ㅡ유타州十九日發同盟】英國自動車競走選手 죠ㅡ지·아이스턴大尉는 十九日 米國유타州한빌自動車競走코ㅡ스에서 時速三百十一哩四二의世界新記錄을 樹立하엿는데 從來의世界記錄은 英國의 말콤·캠벨氏가 一九三五年九月三日 同코ㅡ스에서 지은三百一哩二九이다

今日의運動

◆럭비ㅡ=朝鮮럭비ㅡ協會主催 第二十回全日本中等學校럭비ㅡ選手權大會朝鮮豫選 第一回戰 東萊高普對京商(午前十一時半) 養正對京師(零時四十分) 新義州高普對道商(午後一時五十分) 培材對徽文(午後三時) ◇第十三回全日本高專럭비ㅡ選手權大會 朝鮮豫選 B組優勝者對 大邱醫專(以上全部 京城運動場) 觀覽無料
◆蹴球=朝鮮學生蹴球聯盟主催第十六回 學生蹴球選手權大會 專門部準決勝 [illegible] 第二回戰 午前十時 東崇町 大學豫科運動場(觀覽無料)

보양음 젊어지는약 가이자ㅡ KAIZER 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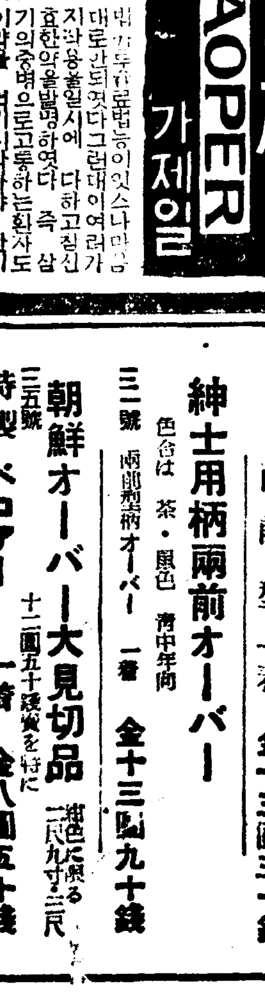
펭 보족증·늑막염엔 나오베ㅡ NAOPER 가제일

림질 대하증·냉병엔 구로벨 KUROBER 가제일

매독엔 푸로다ㅡ PROTER 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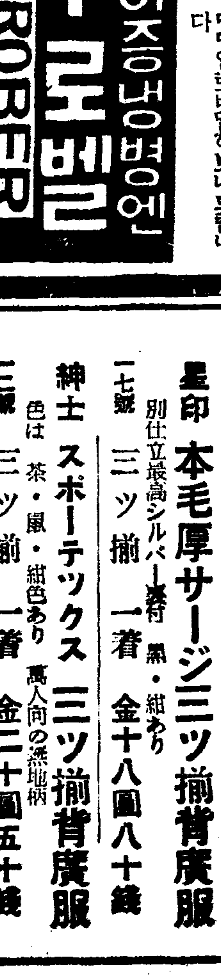
약을써보시고 만일 무효면 어더한 책임이든지 집니다
資本金百萬圓 朝鮮서第一큰藥業會社
京城府西大門町 [illegible]
本舗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光三三四番 一〇七七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ラシヤオーバー大奉仕
二六號 片前型 兩前型 一着 金八圓六十五錢
オーバー寸法 [illegible] 裏付=紺色と黒色あり


高級ラクダオーバー
二八號 片前型 一着 金十四圓八十錢
兩前型 一着 金十五圓五十錢

紳士用柄兩前オーバー
三二號 色合は茶・黒色 靑中年向 一着 金十三圓九十錢

朝鮮オーバー大見切品
三五號 特製ベロアー 十二圓五十錢賣を特に 一着 金八圓五十錢 (紺色に限る 二尺九寸三尺)


ウーステット三ツ揃背廣服
寸法は大・中・小型あり 特大型一割高 色合 茶紺・靑中年向 柄は斜線又は縞柄
一〇號 三ツ揃 一着 金十三圓八十錢

星印 本毛厚サージ三ツ揃背廣服
別仕立最高シルバー裏付 黒・紺あり
一七號 三ツ揃 一着 金十八圓八十錢

紳士 スポーテックス 三ツ揃背廣服
色は茶・鼠・紺色あり 萬人向の無地柄
三號 三ツ揃 一着 金二十圓五十錢

特製黑セル詰衿上下服

玉錦絲コール天特製學生服
十九號 詰衿上下組 一着 金六圓
廿二號 詰衿上下 一着 金八圓五十錢
仕立入念裏付の金ボタン付なり

玉錦コール天作業服
尺一 一年用 一圓九十五錢
尺二 二年用 二圓二十錢
尺三 三年用 二圓四十錢
尺四 五年用 二圓六十錢
金ボタン付長ズボン付上下一着
尺五 六年用 二圓八十五錢
同 中學生用詰衿小型 三圓四十錢
同 中型 三圓七十錢
同 大型 四圓

靑年團服と軍靴の奉仕特賣
大折襟ダブル 同 中 小 詰衿付
特價 上下服 長乘馬ズボン付 一着 金三圓八十錢
寸法は大・中・小共に同値 ダブル型 バンド無 二十錢高
國防色スレン生地 特製團服 一着 二圓四十錢
戰鬪帽 略帽 ゲートル 靑年團帽子 打紐

特製訓練靴 耐久完全無敵品 一足 三圓八十錢
文數は十文より十二文迄同價 指定下さい

名古屋千種區今池電停前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御注文は葉書にて、送料は[illegible] 振替名古屋二八九番

연지 白粉이업서도
어여뿐 머리야말로
女性이가진 훌륭
한 魅力입니다

金鶴香油

株式會社 野村商店

담배를피우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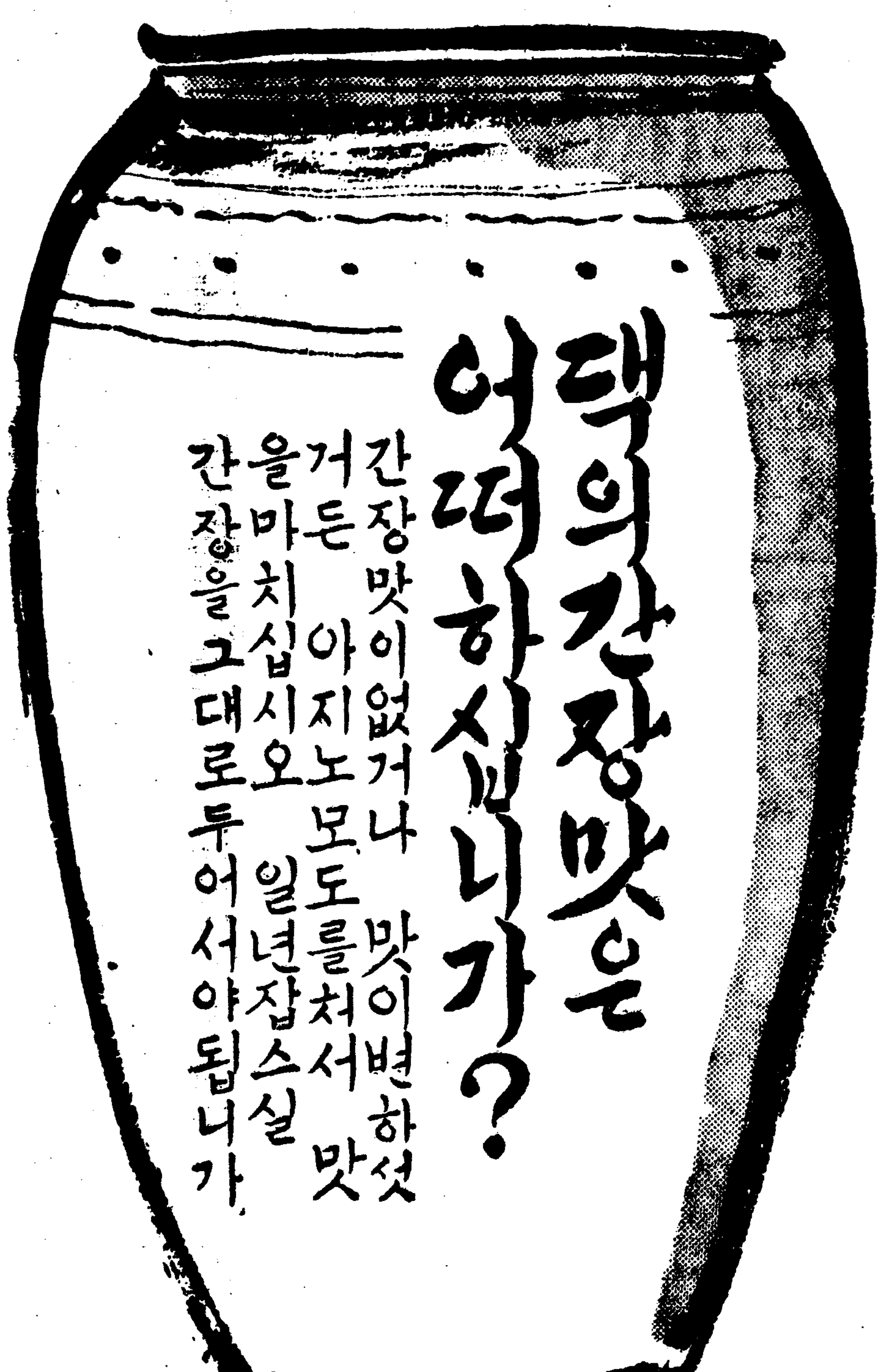
수모카를쓰라

수모카는 主로喫煙家의 齒磨입니다 故로 수모카를 쓰시면 齒齦의 검은 진이곳닥가집니다 그러고喫煙家가안일지라도 누구의 齒齦나 純白한빗을 나게합니다 수모카는 過度한喫煙으로 생기는 입안 헤진데! 냄새! 食慾의 不進! 그것을 防止해서 口腔을恒常正當한 狀態로둡니다 수모카의 粉末에는 適當한濕潤이 含有해잇습니다 그것은 헤푸게散亂하는것을 防止하기 爲한것입니다 一人一鑵의 使用量은 約一個月强그以上의 消費는濫費입니다

定價 十五錢 煙草店에잇슴

本社大邱支局 電話一四四三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11—ㅅ

武田發賣

全身倦怠、眼精疲勞、睡眠障碍
記憶力減退、頭痛、眩暈、腰痛
……其他老衰現象에

男性ホルモ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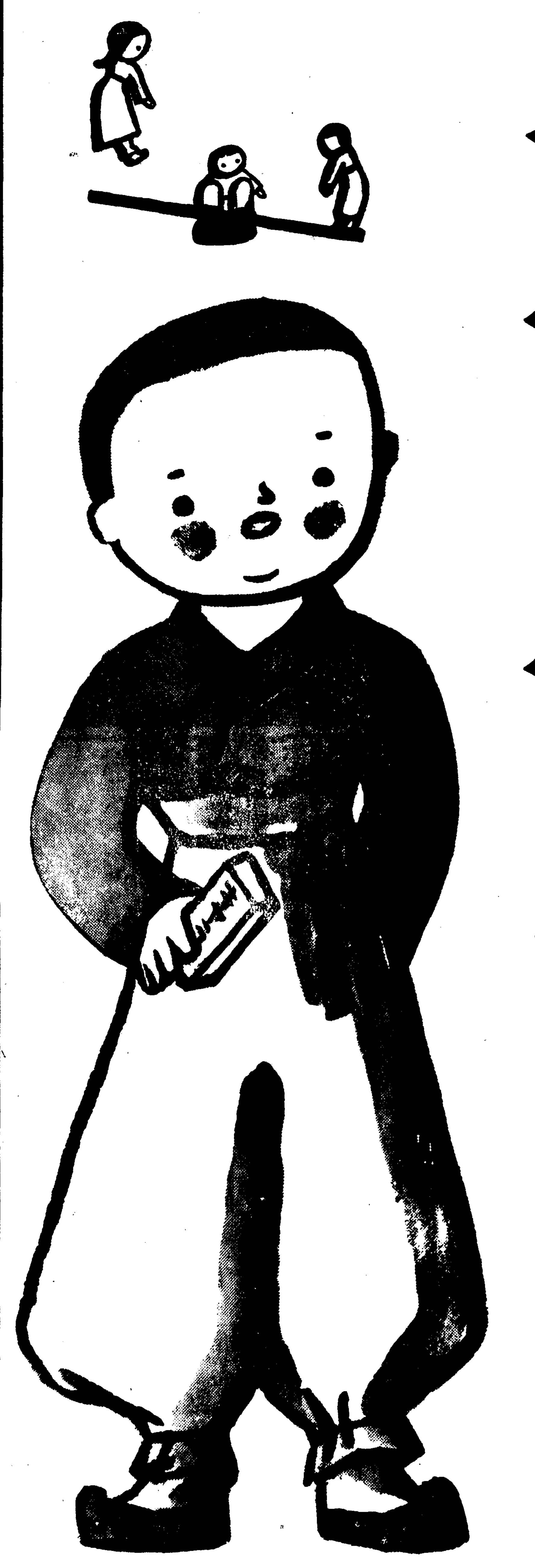
エナルモン (에나루몬)

エナルモン을써서먼저自覺하는것은疲勞感의消失이라고報告함。
即其作用은全身的으로서基礎新陳代謝、肺活量血壓等에好影響을주고 精神的及肉體的活動을活潑케함。
또靑壯年期의各種官能障碍에適用됨

[illegible] 外에注射液이잇슴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關東代理店 東京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製造元 川崎 株式會社 帝國臟器製藥研究所

37(1)94



森永ミルクキャラメル (밀크캬라멜)

十粒 五錢

元氣잇게되여요
맛이아주조아요!
다함께사이조케
논아먹어요

森永製菓株式會社

地方論壇
永興明紬價를 引上하라

永興明紬는 우리地方의 唯一한 特産品인同時에 그品質이나 生産數量에잇서서 他地方으로서는 到底히 追從치못할만치 有名하다 그러므로 이永興明紬의 永久한 向上發展을圖하기爲하야 일즉이 永興産業組合에서는 統制에 依하야 永興特産品의 하나인 苦子와함께 一手販賣하게되여 今日까지 技術과 品質向上에 注力하여왓슴은 一般의周知하는 事實이다 그러나만일 永興明紬의 生命은 即永興産業組合이 掌握하고잇다고 하여도 過言이아닌것이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永興産業組合自身도 經濟的으로 적지안은 [illegible] 어느時期에는 存續의[illegible]에서 彷徨하얏든 때도 한두번이 아니라고 들엇슨즉 그동안 그機能을 發揮하여온 當局者의 苦勞도 적지안헛슬것이다 그러나 今年에는各方面으로부터 特別한 [illegible] 存續을 安心하게 되엿다고 한다 同時에 永興産組에 曙光이 비치는同時에 새로운 出發을 하야 組合員의 日用品配給事業까지 兼營하여 [illegible] 産業實行組合도 數百個所에 達한다고하니 [illegible]

(永興支局 一記者)

昭和水組解散코 小型的水組分設?
再建運動別無効果로 地方農民들間에物議擾頭

【平壤】 말성만흔 동양제일의소화수리조합(昭和水組)은 정부의 산미증식계획의중지로 희생되여 오늘에 밋치엿고 다시그지방지주들의 맹렬한 재건운동이잇섯스나 아직실현될 아무런서망도 업는채로 세월이경과될뿐인데평남도의 전작개량에대하야 소화수리조합몽리구역 삼만여평이일상말성을 일의키고 잇는례에비추어 도당국으로서도 급속한실현을보도록 진력하나 정부의방침이 변경되기전에는 실현을보기가 곤난하여 결국은 소화수리조합을 차라리 해산해버리고 소집단적(小集團的)으로 지방농민의힘으로 소형수리조합을급속히 완성하도록 하는것이 조켓다는 의견이 만허가고잇스며지방농민들로서도 어련히망을 또당국에 자조진정하고잇서 창립비(創立費)만칠십만원을 허비한 소화수리조합도 결국은분산적(分散的) 소수리조합으로 변할형세에 직면하여 전도가 도한볼만해가고잇다

通川郡各面의 小作相談好評

【元山】 소작쟁의의 무풍지대통천(通川) 지방에도 철도개통후 외래자본의 류입과동시 소작쟁의가 증가하기 시작하야 원산지청관내의 소작조정신청의 거의전부가 통천, 안변등지인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야 통천군에서는 각면에 면소작상담소(面小作相談所)라는것을 설치하고 그면내의 소작 분쟁은 우선 그상담소에서 권해등방법으로 조정하야온다는데 여간할 [illegible] 근래소작쟁의가 대단히 격감하야가는 현상이라하며 그곳에서 조정이 어려운것만 군소작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되엿다고한다 그리하야 군소작위원회에 회부하는 소작분쟁은 해마다 감소하는 호성적을 나타내고잇다고한다

大南浦建設압두고 億兩機里民蹶起
第三普校新設等六個條目드러 府當局에 善處陳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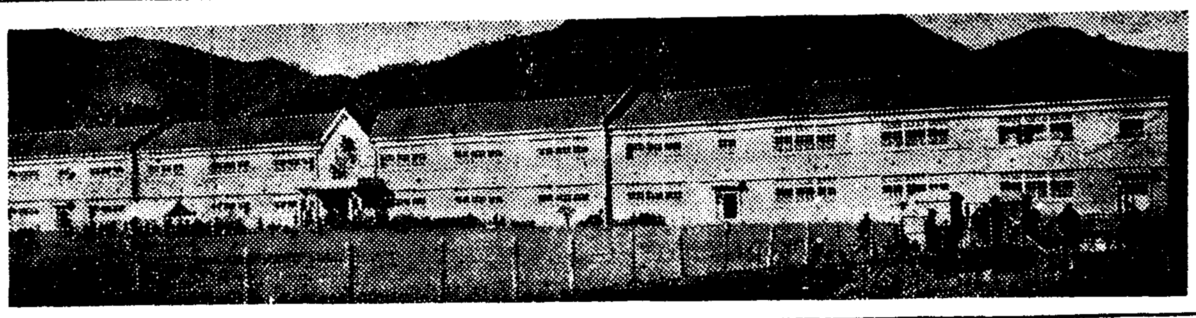
【鎭南浦】 진남포부 억량기리(億兩機里)는 가튼부내이면서도서남방 일우에 치우처잇는관계로 종래 모든시설이 불비하엿스나 최근에와서 어항을비롯하여 배수공사와 도로등이 비교적 완비되여잇스나 방금 대진남포건설공작을 압두고 억량기지는현재이상발전성이 충분함을 억석한주민들은 결속하여 억량기리발전기성회(發展期成會)를 조직한후

一、億兩機里埋立地의處理의件
二、海事出張、石油倉庫建設
三、從來公設市場用地의件
四、第三普校施設의件
五、汚物掃除의件
六、海岸通路開通의件

이상여섯가지 항목을드러 거성회장 마재곤(馬載坤)씨 외오십칠명의 련서로 부당국에 진정하엿다고 한다 수년전부에서 매립한 연안무역지대(沿岸貿易地帶)는 처음부당국의계획과는정반대로 일반에게 개방하지안코특수재벌에게불하하려는 형세가보인다고 하며 더구나 그매립지에 해사출장소와 석유창고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장래발전상 막대한 영향이 밋는다고해서 이를적극반대한다는것과 제삼보통학교가 설립될때는 억량기리에 위치를 정할것이며 오물소제는 종래억량기리민들이 자치제로실시하든것을 금년도부터안하내(安河內)청부업자자 등일케한후 청결이불철저하다는것 등이라는바부당국은 충분고려하여선처할방침이라고함으로 장차억량기리의 발전은 크게기대된다고한다

廿學級收容할 城津公普落成

【城津】 성진공립보통학교는 명치사십년시월십일일개교이래 춘풍추우삼십개성상을 여천명에달하는명재를 길러내인 빗난력사를가진학교로 그간소화이년도에 전교를 소실하게되야 부흥비로 거재한거액의부채를 성진시민이 아직그펏도 다물지못한채로 금년에 또화재로 [illegible] 소실하게된 눈물겨운 일도 수삼차엿섯다 여체관계당국과 성진시민은 어런난관에봉착할때마다 더욱분발하야 금번에는 십만여천여원의 거대한경비로 이십사학급을 수용할일천팔십평의 당당한교사를 겨공하야 팔개월만에 지난십일월십이일에 창립삼십주년이됨으로 동교에서 대운동회를 성대히개최하엿고 십일일에는 삼십주년축하식을 성대히거행하엿다는데 락성식은 아직그일을 정치안헛스나 금월내로거행할예정으로 목하준비에 분망중이라고한다



(사진은 신축교사)

醴泉邑에서 邑制進展座談會

【醴泉】 례천읍려장 권르연비용을절의하여 공공단체에 기부하엿다는것은 기보한바어니와다시지난십칠일 오후일곱시부터읍사무소게상에서 편민다수를 초대하여 읍제진전좌담회(邑制進展座談會)를 개최하엿는데 개회벽두로 장육장의 읍제혁신의제방책에대한 복안을발표하고 동열시경에 폐회하엿는데 그세목은 다음과갓다한다

A現實問題
下水溝及市街地整理 普通學校移築問題 市場統制及地域的區畫 市街地漸進的美化工作 邑을基點으로한産業道路整備 商工會擴大强化區長定給制實施

精神的問題
儀禮準則徹底的實行 他官署와連絡協調의緊密化 邑職員統制强化及威信向上

理想問題
公園及公設運動場設置 市內幹線道路簡易舖裝 地方發展上必要諸機關誘致 公會堂設置 簡易水道設置

平北對岸東邊道에 匪賊出沒 二五八六回
動員數도十五萬八千九百名
一月以降十月末까지의集計

【新義州】 평안북도대안 만주국동변도(東邊道)일대에 출몰하야 량민을 올리는비적의 출몰횟수는금년시월말까지 이천오백팔십륙회 십오만팔천구백명으로 작년동기의 [illegible]에 비하야 보면 일백팔십삼회 오만일천칠백삼십일명의 증가를 보게되엿다 그리고 동변도일대에 출몰한비적은 대개 양정우(楊靖宇) 왕덕태(王德泰)의부하 정빈(程斌) 최현(崔賢) 김일성(金日成) 조국안(曹國安)등의 동북항일련합공산군장비(東北抗日聯合共産武裝匪)로 조선측에월경한 사건은여서도(금년도중에)동변도일대에서 가지폭행을 하야왓는데전게비적의 잔당은 아직 삼천오백여명에달하야 안심할수는 업다고한다

飛六의荒鷲隊도參加
空陸呼應戰展開
二十、廿一兩日에亘하야

【平壤】 飛行六聯隊發表=랍호이 된 적기(敵機)는 언제와도염려업다고 방공의만전을 기하려고대기하고잇는 평양사령부에서는 기보와가티 이십、이십일량일 간에 각기관을동원하여 방공연습을시행하기로 되엿는데 여기에서는 공중에서 비행공전의모든사항을 지상의전사들에게 각각으로 전파(電波)를 통하여 방송시행 실적으로 올리기로되엿다 군용기에"마이크"를 달고공중에서 적기가"래습하는것을 가장빨리 지상의 전사들에게 보도하는일방 동회편제 (?) 화염(火焰)가루를판한개소를"마이크"를통해서 지휘하고 적기래습의 상항도 각각으로 통보하여 주의경계등을행하기로 되엿다 이것은 일반가정에서 라디오의 스위치를 비틀면으로방공의철저를 기약할수잇는 획기적처치라고하다

米棉出廻에따러 不正商人跋扈
慶南道에서團束嚴命

【釜山】 요사이 경남도에서는 미곡(米穀)과 면화(棉花)의 출회가 서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기회로 각지에 부정상인(不正商人)이 발호하야 농민들을 가지가지로 속이여 시가(時價)와 근수등을 속이여서 피해가 상당히 만타고한다 그래서 도당국에서는 각군을 통하야 농민들에게 경고하는동시 경찰당국으로하야금 부정상인의 처치를 철저히하기로 결정하엿다고 한다

府民의注意事項

【平壤】 (朝鮮軍管府總動員) 이십、이십일의 량일간평양일대방공연습을 시행하기로 되엿다함은 기보한바거니와 이날 평양부민으로서는 다음사항을 준수의 실행해야할것이다

◇注意事項

一、情況現示를擔當하여 情況現示班을 設置함
▲그러데情況現示班員은 白色의腕章에 情況現示班이라記載함
二、情況現示의 方法은 다음과如함
▲毒瓦斯는 靑色、燒夷彈은赤色 爆彈은黑色의 發煙劑를使用하고 또長旗에投下彈의種類 被害의槪要를 明示하여 防護團員의 活動에便케함
三、場所及時間等은 公表하지안는다

이상의 주의사항에따러 각처리의반장 특수방호반장들이 적당한 처치를하겟지만 만일사기집부근에 독와사、소이탄、폭탄등적탄(敵彈)이투하될때에는 일반가정에서도 가장급속한[illegible]를향하여 방공연습의철저를 기할것을 지금부터숙지해두워야겟다고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얍사오니照諒하시압

龜浦支局
位置 京釜線龜浦驛前
支局長 金榮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販賣所를設置하얍사오니照諒하시압

北京販賣所
位置 北京崇內大街九九
販賣所主任 全元鳳

謹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管轄分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牙山支局
屯浦分局長 申泰倚
右新任
屯浦分局長 申泰薰
右解任

高官大爵을미끼로 愚夫婦相對大金詐取
被害者數十名光州署에等狀
"車天子의化身?" 善女의罪狀白日下에暴露

【光州】 광주부명치정(光州府明治町)오정목에사는 리선녀(李善女)(?)는 수년전부터선령(仙靈)으로 만병을고친다고 우매한부녀들을 속혀막대한 금전을 삭취한외에 배복녀(裵卜女)노릇을하야 자기의명령을 잘드르면 장차○○조선외 고관이된다고감언이설로써 수년간 삭취한금액이 사오천원에 달한다는바피해자측에서 련명으로 수강(須江)광주경찰서장에게 진정서를제출하는동시 고소를제기하엿스므로 그서에서는 즉시 그를인계한후 엄중취조중인데 그배후에는 모종의인물들이 조종하고잇는듯하다고하여 남어지 죄를추궁중이라한다

木浦高女校에서 猩紅熱患者續發

【木浦】 저남부일목포고등녀학교(木浦高等女學校)기숙사생도소로 아자(小路安子)(?)가 성홍열(猩紅熱)에 걸려신음하는것을발각하고 곳부립병원에 격리치료(隔離治療)케하엿는데 또다시지난십륙일에 동기숙사에서 능세(能勢)라는 여생도가 성홍열에 걸려 곳격리수용하엿다는바학교당국은 물론이오 일반학부형측

釜山臨時府會
廿二日召集決定

【釜山】 부산부에서는 오는이십이일오후한시부터 림시부회를소집하야 좌기사항을 심의결정하기로하얏다고한다

附議事項
一、臨時戰時特別稅施行에伴하야第一種所得稅附加稅廢止에關한條例改正의件
二、追加更正豫算의件
三、不動産處分의件

愛國公債當日賣盡

【新義州】 신의주우편국에서는 [illegible] 도청각부장등이 솔선하여사고 민간측에서도 유력자의 신청이 쇄도하야 당일에 다팔리엇다한다

產業發達에資코저 關係機構를刷新
慶南道具體案樹立中

【釜山】 경남도에는 농산촌진흥(農林)등각산업관계기관및 계원을적재적소에 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산업시험조사기관을 설치코 적극적진흥중에 여러 관계기관과 산업행정기관과의 련락통제가 원활치안허 사업진행상지장이 만흠으로 각기구를쇄신개혁하고 기능발휘에 매진하고자 협조사기관과의 련락을 긴밀히하야 전임기술원과및계원을 증원시키기로결정하고 방금그구체적계획을 수립중이라는데 그계획이수립된다면 경남도산업발전에 큰 도움이되리라한다

英新學院에 千圓喜捨
朴齊龍氏의美擧

【吉州】 길주군길주읍응동(吉州邑岩洞)박제룡(朴齊龍)씨는 그간길주공보와 명천의원등에도 다대한 금액을희사하여 오든중 이번에는 동아동 영신학원의 학교보통학교승격비로 천원을 출연희사하엿다는바 [illegible] 그 미거를 칭찬한다고한다

數字上에들어난 學園銃後赤誠

【海州】 황해도당국에서는 전도내에잇는 공사립중등학교및 초등학교 간이학교 삼백팔십사교에 대하여 시국인식에 관한시설(施設)사항이 여하한가를 조사중이든바 지난시월말까지의집계를보면 다음과갓다하며 학교직원생도아동이 시국에 대하여 여하히 열렬하고잇슴을 여실히 증명하고잇다

一、時局關係諸行事參加
講演會 七六六回 七五四九六人
映畫會 一八八回 六〇五七六人
時局認識强化日 一三九五九人
祈願、奉告祭 一五二五〇六人
二、出征軍人歡送迎
七、九三二回 一、八八六、四二五八
三、遺族慰問
四六一回 生業補助醵出外二〇三圓二七
四、國防獻金
六五六回 五、〇一一圓八〇
五、愛國貯金
四六、六五〇人 八、四九〇圓二五
六、慰問袋
三、二七二袋 三、八八四圓四九
七、慰問狀慰謝禮狀
四一、二二六通
八、社會敎化方面
父兄姊妹會 五、五二〇回 五四、七五一人
靑年團召集 一、二九四回 三〇、三〇二人
部落講演 一、一八〇回 九四一八〇人

江界道立醫院改築工事起工
工費廿萬四千圓

【江界】 지난봄소실된 강계도립의원(江界道立醫院)개축공사는금반 신의주천촌조(川村組)에락찰되여 지난십륙일기공식(起工式)을 거행하엿는데 건축비십삼만 열천이백원에 난방(暖房) 급수(給水)장치와 그라기게수선비등을 합하면 복구비(復舊費)총액여 삼십만사천원으로서 공사소요기간은 삼백일예정이라한다

己妻를食刀로殺害
鐵山郡下의慘變

【新義州】 철산군여한면 상석동(鐵山郡餘閑面常石洞)여백궤신구번지 최준녕(崔俊寧)(?)은 설구일오전두시 조선식도로써 자기의처 기처김씨(金氏)(?)의 배를찔러 즉사시킨후 도망하엿다는 정보를밧고 철산서원이 현장에급행하야 체포하엿는데 원인에대하야는 아직취조중으로 알수업스나 년령관계로보아 『선』불만이 배가 저내인 비극인듯하다한다

大邱

第九回 全朝鮮蹴球大會

▲時日 十一月廿二、三兩日每日午前九時
▲場所 大邱公設運動場
▲申請期日 十一月二十一日午後四時限
△主催 嶺南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大邱支局

長篇小說 濁流 〔41〕
蔡萬植 作
鄭玄雄 畵

아씨行狀記(1)

김씨가 어떻게는 한사부리한 찰통은 첨의집에가고 업는게운명하다。술마진 벼정이라 태수는 따옹노코

『아이구아얏!』

허겁스러게 소리를질르면서 방구석께로 피해들어간다。

김씨는 물어든것을 노치고서 새액 새 기어들고 태수는 방구석에 배쳐서서 두손을 내밀어 김씨를 바워오다。

『다시는 안그러게 다시는…』

태수는 어리펑을 떨면서 빌고 김씨는 약올랏든것이 삭내리기전에 우승이 나오랴고해서 그걸 억지로 참을려 입을 따악 버리고 연해 덤벼든다。

『아!안돼。아!、안돼』

『다시는 안그러께요。거저 다시는 안그래요!』

태수는 지친몸을 지탱하다못해 펄신 주저안저서 두손바닥을 싹싹 비빈다。

김씨는 태수가 그러면그럴수록 꼬옥 한번만 더 물고시퍼 죽겟다。인제는 밉살머리스러워서 그런게아니라 이뻐서 물고섭다。

김씨는 물기를 무척 조아한다。그는 태수가 미워도 물고 이뻐도 문다。물어도 그냥 질근질근 무는것이아니라 사정업서 아드득 물어뗀다。이러케 물어떼는 맛이란 잇념속이 근질근질 몸이 금시로 녹으라지는것가티 세상에도 꼭 둘째가게 조처 세째는 가지아니한다

그더에 태수는 양편팔로 어깨로 젓가슴으로 사뭇 잇빨자국 투성이다。

처음 서초는 소리를내어 트각태각하기가 조심어되니까 소리아니나는 싸움을 하느라고물고 물리고 했든것인데 지금와서는 그것이 두사이에 업지못할 요긴한 애무(愛撫)가 되고말엇다。무는 김씨는 말할것도 업거니와 물리는 태수도 아프기야 아프지만 그놈 살어 떨여질드께 아프든맛이란、약간 안마(按摩)못지아니하게 서언햇다。

김씨는 태수가 젊고 다그 빠게도 여러저지로 조흔데가잇서서 조아하는것이지면、여러캐 물어뗄수엿는것여 더욱 조앗다。

그는、언제가 남편이 첩의집에 거제여니하고 큰집에서 가게 자는밤이면、어서환에 래수한 좌은번로한 떼여 그대저 기롱지지도못한 남편의 첫 장숭을 맹숙 물어떼엇다。

형구부려한잠몽은 경풍하게들데여

『아-머 여에편네가 여건 미첫나!』

소리질르면서 김씨의 볼스대게를 쥐어박질햇다。그러뭄로부러는 김씨는 남편과 잘때면 조심을 하느라고 애를썻다。

김씨는 종시 입을 따악버리면서

『아! 한번만 더물자。아!』

하고 태수아프로 고개를 따고든다。

『아퍼 죽겟구먼!』

태수는 먼첨 물린데를 만지면 짐짓 뚜우하고 두런거린다。

『그래두…。그새 최지은 별루다가。아! 한번만 더。아!』

『실혀!』

『요거사!』

물기도 이렇어나서 언는결에 들어뎀볏는지 태수의어깨를 덥숙물고 몸을 바르르떤다。응용소리가 진그란다。

『아이구우! 여놈의 늙은이가 인제는 남영영 죽이네에!』

태수는 방바닥에 나동그라저우는시늉을하면서 물린 어깨를 손바닥으로 부빈다。

『아프냐?』

김씨는 조아서 태수의 얼굴을 갸웃지 되려다보다가 그의 머리를 안어올려 무릅에 베개해준다。

『응 아퍼죽겟서!』

『아여 가엽서라 내새깽。자어 그럼 쎄쎄!해중깨!』

김씨는 태수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착착 버비면서。

『쎄쎄 쎄쎄! 까처야까치야、우리애기 생일날……아어 술내새야! 술을 또 만히 먹엇구나?』

『응 아주 만히……』

『왜그러케 술을 몹시먹구다니니! 그대지 얼러두……』

『속이 상해서……』

『속이 왜 상하구、또 속상한다구 술만 먹구다니서야 쓰니? 몸에 해롭기만하지…… 무엇 밀시수(蜜水)나 좀 타다주까?』

태수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고 눈을 스르르 감는다。얼굴에는 수심이 자득하다。태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김씨는 역세、태수만 못지안케 얼굴에 수심이 돌여난다。

『아무래두…。아무래두…』

김씨는 가벼게 한숨을 내쉬면서 란석행듯 혼자말을한다。

『…너를 장가를 디러서 말을잡게해야할게라구다』

『장가? 흥! 장가……』

태수는 세뿌롱하게 제자신이 보고 여린 조소를하다가 다시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흥서 우리 초롱이라면……』

『그건 어림없어다!』

김씨는 지금까지 주머하든것과는 딴편으로 표독스럽게 잘 여민다。

기침에

지밋신은 구미에서유행한「지미草劑」의대표적제약으로 지미초의有效成分을맘쓰에混合한것이니 담·기침에효능을볼뿐아니라 이종음으로써 약을실허하는 애라도 잘먹게되므로 더욱有効하오며 기침병중에도 장 표롱이심하고 알는期間이긴 백일해의特効藥으로써 환영을받고잇사오니 초기에사용하시면 豫防이되며 진행중에使用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표롱이심한發作과 담·기침을 개어게하고 전쾌를빨으게 하여줍니다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有名한藥房에서販賣하고잇습니다

喘息

천식·만성담 거침에……

지밋신 에다「鹽酸에후에도링」을 配合한 중환용엿「에후에도로 지밋신」도 잇사오니 주무실때 혹은發작전후에 服用하시면 그런케 심하든 痙攣性興奮을 가란치고 담을가란치게하여 곧 낫게하야 잠을 잘 주무시게 만들어줍니다

エフエドロ、チミツシン (에후에도로 지밋신)

一五〇瓦……一圓八十錢

氣管支 (肺·肋膜)

밭은기침 혈담기침에……

지밋신에다「硫基구아야콜加里」와「鱗酸고데인」을配合한 重患用이니 기관지 폐 肋膜의기침에 가장特効하오니 그병근원에까지 作用하옵니다 그러므로氣候關係로 特히 많은患者가계신 朝鮮에잇어서는 더욱 환영을받고잇는 약입니다

グアヤコ、チミツシン (구아야코 지밋신)

一五〇瓦……一圓八十錢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TY-K-62